

광주신세계의 고민...

오는 2014년 KTX 완전 개통을 앞두고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KTX가 완전 개통되면 광주와 수도권의 '물리적 거리'가 현재 2시간50분에서 1시간30분대로 줄어 역외 매출 증가가 가속화 할 것으로 분석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9개 신세계 백화점 중 가장 작은 백화점 규

모를 키워 지역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부지에 둑여있는 공공시설인데다 시설을 소유한 (주)금호터미널과의 관계 때문에 증축 및 확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시민 중 신세계 카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의 신세계백화점을 서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은 지난 2008년 76억원에서 2009년 98억원, 2010년 124억원으로 매년 3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역외 매출액이 명품 구입에 쓰였다. 다른 지역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광주 시민 역시 2008년 4만 7000명에서, 2009년 6만6000명, 2010년 9만

3000명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신세계측은 지난해 기준 1000억원 정도가 역외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TX가 완전 개통되면 이런 역외 매출액은 크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경북연구원의 '2009년 말 KTX 개통 이 대구지역 경제에 미친 과정효과'에 따르면 유통·관광·교육·의료 등 주요 서비스산업 부문에

소지가 높다.

게다가 최근 백화점들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에 따라 면적 매장 입점 등 시설을 늘리고 싶어 제약이 많다.

지난 1995년 광주 현지법인으로 문을 연 광주 신세계는 현재까지 백화점 1층 총면적 2314m²(700평) 중 영업공간을 제외한 991m²(300평)이 광천터미널편의시설(도시계획시설)로 둑여있다. 또 도시계획시설인 탓에 브랜드 변경에도 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개점 당시에는 매장면적 2만3100m²(7000평)로 전국 신세계 백화점 중 가장 큰 규모였지만 현재는 9개 점포 중 가장 작은 규모가 된 점포 크기도 문제다. 최근 2~3년 새 개점한 전국 주요 백화점들의 매장면적은 수도권이 평균 4만6200m²(1만4000평), 지방이 72,600m²(2만2000평)로 광주 신세계의 2~3배 규모다.

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악화도 백화점 측에서는 고민거리다.

신세계측은 최근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소유한 금호터미널측과 KTX 개통을 놓고 증축 등 관련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설 변경 심의는 광주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KTX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를 우려해 하드웨어 키우기 등 지역 랜드 마크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중"이라며 "하지만 터미널 부지에 둑여있는 공공시설이라는 한계 등 현지법인으로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여건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년 뒤 KTX 완전개통 '빨대효과' 뻔한데 고급화·대형화 만이 해법이지만 교통평가·공공시설 제약 등 난제 '첩첩'

모를 키워 지역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부지에 둑여있는 공공시설인데다 시설을 소유한 (주)금호터미널과의 관계 때문에 증축 및 확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시민 중 신세계 카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은 지난 2008년 76억원에서 2009년 98억원, 2010년 124억원으로 매년 3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역외 매출액이 명품 구입에 쓰였다. 다른 지역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광주 시민 역시 2008년 4만 7000명에서, 2009년 6만6000명, 2010년 9만



소믈리에 대회 '최후의 승자'?

12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한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감별하고 있다. 프랑스 농식품 수산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상위 3명의 소믈리에는 프랑스 와이너리 연수를 얻게 된다. /연합뉴스

외국기업-국내 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사활 건 'LED 조명' 싸움

각 대기업이 앞다퉈 미래 먹거리를 정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을 놓고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외국기업 선점..국내기업 도전 =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급형 가정용 LED 조명이 일관 매장에 첫선을 보인 것은 불과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중순으로, 세계 1위 조명업체인 필립스가 2만5000~1만8500원짜리 3종을 출시하면서다. 세계 처음 LED를 개발한 GE라이팅도 올해 초부터 실내외용 LED 조명 9종을 내놨고 오스람은 경기 안산 조명제품 전시관을 넓히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 했다.

국내 대기업도 외국기업의 뒷발이던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LED는 지난해 8월 2만~3만 원대 4종의 대형마트 판매를 시작했

으며 올해 5월 초 60W 백열등 대체용으로 정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을 놓고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외국기업 선점..국내기업 도전 =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급형 가정용 LED 조명이 일관 매장에 첫선을 보인 것은 불과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중순으로, 세계 1위 조명업체인 필립스가 2만5000~1만8500원짜리 3종을 출시하면서다. 세계 처음 LED를 개발한 GE라이팅도 올해 초부터 실내외용 LED 조명 9종을 내놨고 오스람은 경기 안산 조명제품 전시관을 넓히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 했다.

국내 대기업도 외국기업의 뒷발이던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LED는 지난해 8월 2만~3만 원대 4종의 대형마트 판매를 시작했

으며 올해 5월 초 60W 백열등 대체용으로 정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을 놓고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奥斯람의 특허를 보유한 멘스가 6월초 삼성·LG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자 삼성LED도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섰고, LG전자와 LG이노텍은 추가로 한국 무역위원회에 오스람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반면 대기업은 중소업체가 독자 칩 기술 등을 축적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와 조립 납품하는 영세한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대기업이 손을 뗄 때면 국내 시장은 외국 기업이 접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연합뉴스

세금 없는 '富 세습' 집중 조사 국세청, 기업주 등 204명 적발

광주은행·전남교육청 특성화고 취업 지원 협약



광주은행은 12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6층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특성화고 산학협력취업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최초로 4명의 특성화고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여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광주은행은 전남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권 취업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최초로 4명의 특성화고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여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최초로 4명의 특성화고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여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최초로 4명의 특성화고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여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최초로 4명의 특성화고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여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1월 은행권 최초로 4명의 특성화고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했으며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도 각각 10여명 규모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핸 011-620-3960 ☎ 062